

# 2025 리더스포럼 SWEET 패널 토론

## 주제 : 이공학 전문가의 커리어와 삶

글 | KWMS 4기 학생기자 김가연, 이다현, 이윤서

10월 17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KWMS 리더스포럼에서는 'SWEET 패널 토론: 이공학 전문가의 커리어와 삶'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 이공학 전문가들이 각자의 진로 여정과 도전,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회는 공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진선숙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들을 소개한 뒤 사전에 취합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자는 시간 관계상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신 지난 국제학술대회 NGC 프로그램에서 나온 질문들 중 일부를 선정해 토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첫 번째 패널 - 김미경 클로버추얼패션 연구원

클로버추얼패션(CLO)은 의상 디자인 소프트웨어부터 디지털 자산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가상 의상 피팅까지 의상 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이다.



김미경 연구원은 수학 교사로 재직하던 중, 컴퓨터공학에 흥미를 느껴 카이스트 문헌기술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수학에서 공학으로의 전공 전환이 쉽지 않았지만, 이후 대학과 기업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CLO 기업에서 연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자사의 2가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CLO(클로)와 Marvelous Designer(마블러스디자이너)가 있다. 마블러스디자이너의 경우, 실제 CG나 게임 쪽에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의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과거엔 실제 천 위에 디자인하고 가공, 편집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작업을 가상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제작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환경적 부담도 줄어들었다.

김 연구원은 "공학이 예술을 지원하고, 창작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데 함께한다는 면에서 큰 흥미를 느낀다"며, 디자이너들이 상상하는 세계를 기술로 실현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 ▲두 번째 패널 - 김영주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부교수

김영주 교수는 미분기하학과 위상기하학, 쌍곡기하를 연구하는 수학자다. 대학원 진학 후 수학 연구에 전념하며 해외 유학 과정을 거쳤고, 이후 약 7년 반 동안 고등과학원(KIAS)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수학자로서 시기별로 마주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교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기 연구자 시절부터 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성과를 논문 수나 기간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의 동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세 번째 패널 - 이영미 (주)에코브레인 대표이사



이영미 대표이사는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응용기상을 전공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실시간 기상 예보 모델과 통계 기법을 결합해 실시간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사 수료 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자 기상회사를 거쳐 2009년 '에코브레인'을 창업했으며, 올해로 15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에코브레인은 기상 데이터 가공 및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산불 확산, 침수 등 재난 예측 솔루션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기상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대표는 "기상학은 수치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수학적 모델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기초과학을 토대로 기술·산업·데이터를 융합하는 접근이 자신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 ▲네 번째 패널 - 황숙정 충북대학교 수학교육과 조교수

마지막으로, 황숙정 교수는 비선형 편미분방정식을 연구하는 수학자다.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여 수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수치해석학 분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영국에서 편미분방정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고, 박사학위 취득 후 영국과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수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황 교수는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조언을 전했다. 이는 오랜 연구의 결실을 앞둔 기쁜 시기인 동시에, 불안함이 커지는 시기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며 연구의 내실을 다지고, 타인과의 비교보다 자신의 연구에 집중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더불어 “겸손함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자의 핵심 자질”이라며, 박사 학위 이후의 시기를 새로운 탐구의 출발점으로 바라보길 당부했다.



---

이번 SWEET 패널 토론은 각자의 길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네 명의 여성 이공학자의 경험을 통해, 학문과 산업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다. 연구 분야와 커리어의 방향은 모두 달랐지만, 4명의 패널 모두 꾸준한 배움과 열린 태도,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연결의 중요성을 공통된 메시지로 전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